

유한자의 고귀한 숙명

플라톤 <향연>

영어영문학과
2013***** 차현재

I. 서론

"All you need is love"는 1967년 발표된 비틀즈의 대표 곡 중 한 곡이다. '당신이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가 나온 후렴구에서 알 수 있듯 이 노래는 줄곧 사랑의 필요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또한 영화 <러브앳츄얼리>의 OST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 또한 "사랑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love actually is all around)" 라는 대사로 끝맺는다. 이 외에도 현대인은 어렸을 때는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를 통해, 이후에는 TV나 영화, 혹은 성경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아니,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는 존재이다. 현대인은 사랑의 과정에서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사랑과는 멀어 보이는 수많은 '나쁨'들, 고통, 갈등, 기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타적이고, 순수하며, 자비롭고, 평화롭고, 영원하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현대인에게 '사랑'은 '신'이 된 것이다.

<사랑의 탄생>의 저자 사이먼 메이는 1)¹⁾ "18세기 말 이후로 기독교가 물러나면서 남긴 진공을 사랑이 점차 채워"나갔고, "그 시기에 '신은 사랑'이라는 공식이 그 반대처럼 보이는 '사랑은 신'이라는 공식으로 역전되었고, 지금은 서양의 암묵적 종교, 어쩌면 서양에서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정작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대부분의 이들이 사랑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결국 사랑은 그들 각각의 수많은 정의들로 인하여 점점 더 왜곡되고, 그 아래 수많은 꼬리표들을 달고 있는 존재가 되어 간다. 마치 어떤 물체에 각각 자신이 원하는 인공항수를 계속해서 뿌리듯, 나중에는 남아있던 그 원래의 향기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기저에는 사랑에 관한 특이한 태도를 보이는 현대의 대중문화가 있다. 바로 사랑의 신비주의(mysticism)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 글이나 영화, 노래는 넘쳐나는데도 정작 사랑 그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문화는 적다. 사랑은 과정일 뿐이다. 오히려 사랑을 탐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순수한 영역인 사랑을 더럽히는 행위라고까지도 여겨진다. 이러한 믿음이 강화될수록 백마 탄 왕자님과 같은 설명 불가능한 우연적, 운명적인

1)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학동네, 2016, 18쪽

만남에 대한 사랑의 판타지 또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사랑 자체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은 배제된 채 수많은 판타지만 생산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진정한 ‘인간적인 사랑’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왜 왕자가 백설공주와 ‘사랑’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또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의 커튼 뒤에 가려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의 <향연>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 바로 ‘사랑’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과정에 대한 비밀이다.

II. 본론

1. 사랑의 원인에 관하여 - 유한자의 숙명, 존재론적 정착을 위한 욕구

아리스토파네스는 2)“네 개의 팔, 그리고 팔과 같은 수의 다리, 그리고 원통형의 목 위에 모든 면에서 비슷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류의 원형을 제시하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처벌로 반으로 나뉜 지금의 인류가 생겨났다고 한다. 배꼽은 ‘상처를 가진 유한자의 흔적’으로 존재한다. 유한자인 인류가 불멸의 신, 무한자에 의하여 평생 그의 반쪽을 찾아다닐 숙명이 생겨버린 것이다. 즉, 사랑은 3)“그 온전함에 대한 욕망과 추구”인 것이다. 이러한 온전함에 대한 욕망은 잃어버린 반쪽, 내 짝을 찾아 헤매는 현대의 수많은 사랑이야기 속에도 녹아들어 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천생연분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자신의 짝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이 ‘온전함’에 대한 욕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온전함’을 더 구체화 해보자.

이 ‘온전함’에 대한 욕망은, 유한자의 숙명이라고 했다. 현 인류는 그러한 온전함을 찾아 자신의 반쪽, 즉,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반면, 4)“힘이나 활력이 엄청났고 자신들에 대해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원인류들은 자족적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그들은 그 자체로 자족하고 있어 타인이라는 존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신들에 대한 “대단한 생각”을 한다.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바로 ‘온전함’의 가장 큰 강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인류는 이러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의 힘이 아니면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인간은 늘 어떠한 타인(자신의 반쪽)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타인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고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합해지고자 하는 욕구는 존재론적인 도달 혹은 정착을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로이트 또한 이러한 5)“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되려는 욕망을, 그리고 연인들이 서로의 경계가 녹아버린다고 느끼는 ‘대양감oceanic feeling’을, 아기와 어머니가 하나를 이루고 있던 원초적 발달 단계로 퇴행하는 현상”으로 표현한다. 어머니의 자궁은 분리가 되기 전 우리 존재의 근원적 고향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온전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를 통해 유한자의 숙명인 사랑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결여되어 있는 존재이자, 가사적 존재이다. 그러한 결여되어 있는 것을 향한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6)“좋은 것과 더불어 불사를 욕망한다”. 이는 가사의 존재인 유한자가 불멸, 불사적인 무한자를 욕망한다는 아리스토파네

2)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190a

3)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193a

4)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190b

5)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학동네, 2016, 90쪽

6)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207a

스의 설명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전함의 자족적인 특성 또한 설명한다. 디오티마는 이 온전함을 ‘아름다움 자체’로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해 7)“오히려 그것은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만으로 늘 단일 형상으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다른 것(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유한자인 인간은 이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디오티마의 사랑의 원인 역시 존재론적인 정착을 위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수많은 사랑을 다룬 서양 철학의 설명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 또한 전체로서의 자연을 ‘온전함’으로 규정한다. 자연 또한 무한자적 존재로서 그 존재의 근거를 타자에서 찾지 않는 존재이다. 스피노자에게 사랑은 전체로서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다.

2. 사랑의 결과에 대하여 - 해를 똑바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사랑은 유한자인 인간의 숙명으로, 존재론적인 정착을 위한 인간의 욕망인 것이다. 사랑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그 욕망, 사랑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이는 바로 궁극적으로 그 존재론적인 정착을 위한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에서, 그들의 ‘만남’ 후에 그들은 과거의 온전했던 기억을 찾은 듯 한 기쁨으로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온전함에 대한 기쁨은 잠시일 뿐, 개별적인 두 개체는 신이 아닌 이상 결코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 게다가 신 또한 그들을 다시 합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디오티마의 경우, 영혼의 사다리를 통하여 도달하는 사랑의 결과는 결국 ‘아름다움 그 자체’를 욕망하는 것이라 한다. 유한자인 인간이 사다리의 꼭대기인 ‘아름다움 그 자체’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 아름다움 자체는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일 것이다. 이데아 또한 존재론적인 고향과 같이 원래의 형태, 어떠한 형상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유한자인 인간은 결코 이데아를 충족할 수 없다. 프랑수아즈 다스튀르는 <죽음>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예시로 들며 설명한다, 8)“사색가가 (되돌아간 것은) 영원히 계속 머물거나 빛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유한자인 우리가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듯 이데아의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도 그 욕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소크라테스는 그 욕망의 충족 자체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파네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진다.

3. 사랑의 과정에 대하여 - 알키비아데스 이야기가 ‘진리 이후’에 와야하는 이유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절대적인 진리의 사다리 이야기 다음에 알키비아데스가 불쑥 나타난다. 그리고는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받은 수많은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상처들을 털어 놓기 시작한다. 9)“왜 이런 사랑 이야기가 ‘진리 이후’에 덧붙여지는가?” 이 질문은 “이렇게 사랑에 관한 원인과 결과는 명확하게 모두 공통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음에도 사랑에 대한 수많은 판타지, 스토리 혹은 비극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과도 같다. 그 이유는

7)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211b

8) 프랑수아즈 다스튀르, 나길래 옮김 『죽음-유한성에 관하여』, 동문선, 2003, 31쪽

9) 양운덕, 『사랑의 인문학』, 삼인, 2015, 401쪽

바로 사랑의 과정에 있다. 사랑을 향한 접근 방식, 그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디오티마가 설명한 에로스의 ‘중간자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다. 빈곤의 신과 방도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중간자는 그 궁핍함에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한 수많은 방도, 계책들을 꾸민다. 이로 인해 나타난 사랑의 과정은 말 그대로 카오스적인 수많은 방도들의 전장(戰場)이다. 그리고 개별성(유한자)와 보편성(존재론적 고향)의 싸움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경우,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만남’, 혹은 ‘발견’의 과정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10)“그리하여 원시의 결합을 되찾으려는 사랑의 야망은 금세 심오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만다. 그들은 그러한 사랑의 원인 자체, 존재론적인 정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어서 쉽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11)“일단 우리가 욕망과 그 욕망의 짝을 지어 언정 달콤한 만족과 고통들을 맛보면, 완전체가 되는 것 또한 고민이 아니겠는가?(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까?)” 이들은 개별성(각자의 몸)과 온전함이라는 보편성(존재론적 고향) 그 사이에 끼어 중간적인 위치에서 항상 뒤섞이고 고민하고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랑은 비극이며, 잠깐의 만족, 그리고 고통의 연속의 끊임없는 순환고리가 될 것이다.

디오티마(플라톤)의 경우, 그녀는 이러한 사랑의 과정에 윤리라는 매우 큰 선입관을 주입한다. 12)“친애하는 소크라테스, 인간에게 삶이 살 가치가 있는 건 만일 어딘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에서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 때 말입니다” 발터 슈츠는 플라톤의 에로스에 대한 선입관을 13)“즉 플라톤에 의하면 불멸성은 영혼 자체의 ‘위를 향한’ 운동을 통하여 그 진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사상에 있어서 주관적이며 윤리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플라톤은 사랑의 과정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사랑에 고삐를 채워 조건적인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이란 오직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다. 게다가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들 중 14)“가장 아름다운 것이 국가들과 가정들의 경영에 관한 사리분별”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훌륭한 사람은 다른 이를 15)“가르치려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사랑받는 이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 타인의 육체의 아름다움같은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되, 동시에 보편적 진리인 이데아를 위해 그 개별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 안된다는 과제 또한 부여받는다. 바로 이 과제에서, 나아가는 에로스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성(한명의 유한자)과 보편성(존재론적 고향)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알키비아데스의 경우처럼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랑의 비극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 이후에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를 제시한 이유가 아닐까. 현실의 사랑의 과정은 쉽지 않다.

마음의 시각은 눈의 시각이 정점에서 내리막으로 접어드려 할 때 날카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현실에서 마음의 시각(존재론적 고향)과 눈의 시각(유한자)은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각자가 그것에 부여한 가치관이나 선입관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의 과정이 바로 이 사이에 끼인 중간자적 이야기보따리로서 그것은 현실에 수많은 사랑에 대한 판타지, 스토리들을 낳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10)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학동네, 2016, 92쪽

11)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학동네, 2016, 92쪽

12)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211d

13) 장 폴 사르트르 외, 정동호 역 『죽음의 철학』, 청람, 2004, 49쪽

14)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209a

15)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209c

다. 사랑에 관한 여러 논문, 고전들을 살펴보면 항상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 인간의 역사의 동력과도 같은 이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왜 지금 우리 현실의 사랑과 그렇게도 동떨어져 보이는 것일까? 이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옛 중세시대의 전염병이 악령이 아니라 위생,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애초에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인간은 무기력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앞서 우리는 그래도 ‘명확함’과 가까운 사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III. 결론 - 인류의 오래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유한자가 그리는 무늬

앞선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정착을 위한 욕구, 즉 온전한 자족성을 위한 욕구이다. ‘온전한 자족성’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그 욕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충족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서머셋 모음 그의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모두 “태어나, 고생하다,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성찰한 에로스 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 죽는다는 점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지만, 중간의 “고생하는” 과정은 각자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과정에 있어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자로서의 인간은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민(삶과 죽음)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전 세대가 그러했듯이, 또다시 다음세대로 에로스, 아름다움, 사랑, 삶, 죽음 등과 같은 고민을 넘기며 살아갈 것은 자명하다. 아마 인간의 많은 실존적이고, 특히 ‘현대적’인 ‘불안’은 여기서 탄생하는 것일 것이다. 유한자인 인간은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기위한 무기인 “상상력”으로 수많은 환상들을 만들어 나간다. 디오티마가 말했듯, 이렇게 혼란스럽고 덧없는 고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영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안을 얻어가는 것이다. 16) “생에는 객관적 의미도 없고 객관적인 부조리도 없다. 그런 고상하고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도 실은 알고 보면 의미 강박에 시달리는 인간이라는 직업이 가진 기이한 직업병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미의 늪에 빠져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진 채 살아가야 하는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런 태도에 빠진다면 인간은 앞서 말한 실존적 고통 앞에 비무장한, 별거벗은 재미만도 못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게 될 것이 뻔하다. ‘사랑’은 이러한 덧없음에 대한 대항으로서 인간이 발명해 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신은 인류가 지상에 오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환상이라는 묘약을 심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환상’을 잘 이용해 먹어야 한다.

그 사랑이라는 ‘환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모두 온전한 자족성을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국 그 환상을 가동하는 동기 혹은 방향 또한 그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타인이 만들어놓은 잣대들, 강요된 환상들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의 무늬를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타인이나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모든 사회적인 유대를 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인도에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는 항상 자신 곁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성경도 매일 읽음으로써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유한자인 인간으로 같은 실존의 배에 탄 동반자들이다. 결국 진정한 자족성은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닌 그 안에서의 ‘진정한

16) 셸던 솔로몬, 『슬픈 불멸주의자』, 흐름출판, 2016, 189쪽

결속'인 것이다. 진정한 결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의 '주도'로 타인의 의견을 마주하는 것이다. 17) "신발에 내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나답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개인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각 개인에게 맞을 수는 없다. 심지어 그 제공자가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말한 '아름다움을 향한 사다리'는 성장, 발전의 이미지에 'growing up'이라는 방향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에로스의 과정이 자신의 뿌리를 향한 여정, 자신의 근원을 향한 여정, 즉 'growing down'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다른 척도로도 잴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을 주는가! 흔히 보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폭력적인 환상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다. 우리는 아무런 숙고 없이 사랑이 '낭만적' 잣대로 재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불행해질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사랑을 망칠 뿐이다. 낭만적 사랑모델은 상대방끼리 서로 주고받는 행위에 중심을 둔다. 하지만 그곳엔 충족없는 끝없는 욕망의 과정만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이 낭만적 사랑에 대하여 우리만의 해석을 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역설적으로 타인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타인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자신과 동화하려 하지 않고, 그를 환원 불가능한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무늬를 그려나가는 것이다. 향연에 나온 18) "플라톤식 사고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에로스를 통하여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낳을 수"있는 것이다. 타자를 통한 나에 대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자신이 그려나가는 무늬를 이곳을 떠날 때 나만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유한자의 고귀한 숙명'인 이유가 아닐까.

17) 닉 수재니스,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책세상, 2016, 154쪽

18)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학동네, 2016, 111쪽

참고 문헌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북스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학동네
프랑수아즈 다스튀르, 『죽음-유한성에 관하여』, 나길래 역, 동문선
양운덕, 『사랑의 인문학』, 삼인
장 폴 사르트르 外, 정동호 역 『죽음의 철학』, 청람
셸던 솔로몬, 『슬픈 불멸주의자』, 흐름출판
닉 수재니스,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책세상